

청소년들의 성관계의향 수준과 예측변수에 관한 연구: 이성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창식 · 김윤정*

초 록

본 연구는 이성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 의향 예측변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이성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159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47.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둘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의향에는 성별, 자존감, 개방주의적 성태도, 쾌락주의적 성태도, 열정/헌신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남학생일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쾌락적일수록, 열정과 헌신적인 사랑을 할수록 성관계 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성관계, 성태도, 성행동, 사랑

* 한서대학교

I. 서론

현재의 청소년들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태어나 아동기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화의 영향으로 성인들의 성문화, 성가치관, 성행동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세대들이다. 즉, 과거에 비해 남녀차별의식 타파를 가르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남녀차별에 기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 낮지만, 대인간의 접촉이 차단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장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이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충실한 나머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성욕을 성인들처럼 발산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윤가현, 2000).

특히 결혼의 연령이 늦춰지는 시간적 규범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소년들은 성적 담론화가 일상화된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신체적으로 성숙했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성행동을 하기까지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여기에 우리 사회는 법이 인정한 부부간의 성행동 외에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윤리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무분별한 성행동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과 더불어 HIV, AIDS같은 성병의 전염위험성 및 원치 않는 임신의 발생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기(Irwin & Shafer, 1992)때문에 청소년들의 혼전 성행동이나 성에 대한 관심, 허용적인 성에 대한 태도는 일탈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향 속에서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의 발산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적 관심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행동 유무, 빈도, 성의식, 성태도, 성성(sexuality)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던 학문적 경향은 90년대 중반이후 비행의 견지에서 청소년의 성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음란물 접촉과 성행동과의 관련성(남영옥, 이상준, 2002; 이명화, 1998), 인터넷과 청소년들의 성행동(김민, 2002), 비행청소년들의 초기 성행동(양성은, 조주영, 2005),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임신(최소영, 김영

해, 오현숙, 2004) 등이 있다. 여기서 청소년의 성에 관한 논문들은 상당수가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청소년의 성과 성행동에 관한 편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결과로 성교육과 상담에 있어서 접근의 오류를 범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행동, 그리고 관련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들의 성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일단의 연구들(김신영, 2005 ; 김윤정, 이창식, 2005; 김주희, 송은일, 강성희, 2003;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 양성은, 조주영, 2005 ; 오덕자, 2003 ; 윤경자, 2002 ; 조주영, 김영희, 2001)이 있다. 이 연구들은 성행동이 성태도, 성지식, 성파트너와의 친밀감 및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주고 있지만, 다음 몇 가지의 제한점에서 본 연구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첫째, 연구대상에서 이성친구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는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학생 및 과거 사귀 경험에 있는 대학생들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주희 외, 2003), 심각한 수준(이성간 애무 이상)의 성관계에 가장 큰 영향 변인이 애인 유무임(문인옥, 1998)을 고려 할 때 이성 친구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행동 측정에서의 문제로, 성행동 측정을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하는 연구와 성관계여부만을 측정한 연구로 나누어지는데, 성행동 관련변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다양한 수준의 성행동을 측정하고, 이를 평균내거나 합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은 이성교제나 포옹, 뽀뽀 등 가벼운 수준의 성행동과 성관계 경험에는 상당히 다른 기준을 적용(김윤정, 이창식, 2004)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력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행동 예측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관계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성행동에 초점을 두고 예측 변수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셋째, 성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미 경험한 성행동과 관련변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토대로 경험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시도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할 의향과 관련변수를 파악한다면 청소년들의 혼전 성문제를 예방하거나 건전한 성 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성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 의향 예측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성교육과 성상담을 실시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교육 및 상담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의 성관계의향은 어느 수준인가?

둘째,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의 성관계의향 예측변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성관계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성을 많이 다루고는 있으나 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섹슈얼리티(sexuality)란 에로틱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성교나 자위행위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적 반응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누군가와 애정이 넘치는 대화 등과 같이 우리가 성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포함한다. 때

로는 가치와 연결된 것이기도 하며, 권력이나 권위, 남녀차 등도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것들이다(김민경, 1998). 이와 관련하여 성행동은 다양한 수준의 성행동 즉, 자위, 키스와 애무, 성교 등을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구체성을 위해 이성간의 성관계(성교)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최근 연구일수록 성관계 경험비율이 높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그 비율 정도에는 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97년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삼, 이기종 및 조원호(1997)의 연구에서는 17.9%가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규모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신영(2005)의 연구에서는 3.3%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참조집단에 대한 질문을 근거로 성행동을 추정한 윤가현(2000)은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비율이 대략 37.6%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성관계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이 역시 연구마다 차이가 존재해서 연문희 외(1997)이 대학생 2,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27.9%가 애인과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주희, 손은일, 강성희(2003)는 34.2%라고 보고했으나, 남자대학생의 경우 47.4%라는 보고(이인숙, 1994)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학생의 성관계경험을 평균내서 보고한 경우와 남녀를 따로 보고한 경우에서 오는 차이이기도 하고, 성관계의 경험을 청소년에 따라 과장 혹은 축소해서 응답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한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가 포함된 경우 다르고, 중학생이 포함되는 경우는 현재하게 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

김기환(1999)은 성관계 비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고 하였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최근의 연구경향은 성관계 경험 유

무보다는 성행동의 빈도, 성행동의 파트너 수, 콘돔사용의 유무, 성병의 유무, 임신횟수 등이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을 만큼 청소년의 성행동이 급증하고 있다(조주영, 김영희, 2001).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도 단순히 성관계비율에 연구의 초점을 두기 보다는 성관계 의향까지도 포함함으로써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성관계 의향 예측 요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분석된 연구일수록 청소년들의 성행동 중 성관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성관계의향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성행동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성관계의향 예측요인을 찾아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행동은 이성 친구에 대한 사랑, 교제기간, 자존감, 연령, 성별,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등과 관련이 있다.

성태도 보수적 성태도보다 개방적 성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성관계 경험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신영, 2005 ; 이인숙, 1994; 박희성 등, 1995 ; Peplau, Rubin, & Hill, 1977). 또한 성태도 중 허용형과 쾌락형은 성관계 경험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보수형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조아미, 2001)도 있다. 즉, 성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쾌락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의 성관계 비율은 높은 반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의 성관계 비율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성 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nata & David, 2002).

사랑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헌신의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성행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윤경자, 1995, 2002; Regan & Berscheid, 1995; Mosher & Maclan, 1994; Sprecher, Regan, & McKinney, 1988). 또한 홍대식(1996)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열정에, 미

혹애 및 이타애 모두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랑과 성관계간의 관계에는 성별 차이가 있어서, 여성의 95%, 남성의 40%가 자신의 성행동 결정요인은 애정 혹은 감정적 몰입이었다고 진술하였다(Carroll, Volk, & Hyde, 1985).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성을 육체적, 쾌락적 행위로 보고, 여성은 감정적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는 경향과 일치한다(박희성 외, 1995).

자존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자존감 역시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낮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성관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nata & David, 2002).

연령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성관계 경험이 증가한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신영, 2005 ; 김영옥, 1983 ; 박희성 외, 1995; 윤경자, 2002).

성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성관계 경험 비율이 높다. 1998년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가 11,364명의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남자가 6.4%, 여자가 3.2%,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가 17.5%, 여자가 6.7%의 성관계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진화 외, 2002 재인용). 또 MBC(2000)가 1999년에 전국 중고생 1,500명을 조사한 결과 남자 8.4%, 여자 2.1%가 성관계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정경제수준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보다 성관계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nata & David, 2002; Rwenge, 2000).

거주지 거주지에 따라서 성관계 경험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김성수, 김경준, 전경숙(2000)에 따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세까지의 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11.7%, 근교도시 청소년들이 21.2%,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24.3%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성관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교제기간 교제기간은 이성간의 친밀감이나 사랑의 정도를 두텁게 할 것이고 이는 성관계 경험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교제기간과 성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켰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02년 11월 충남의 한 대학에서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각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간 상관관계를 보고 수정 할 문항과 불필요한 문항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하여 척도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12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실시하였다. 서울경기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각각 한 학교씩을 선정하였으며 남녀와 거주지 비율이 고르도록 편의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를 통해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학년별 및 성별, 거주지별 구성이 최대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550부를 배포하여 미회수된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만 24세가 넘는 학생이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510명의 자료 중 현재 이성과 사귀고 있다고 응답한 159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성과 사귀고 있는 본 연구의 대상은 성별로는 남자 46.8%, 여자 53.2%로 여자가 약간 많은 편이며, 평균연령은 19.32(만14-만24세)세이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이 37.7%, 대학생이 62.3%로 대학생이 2배 가까이 많다. 또한 거주지는 대도시가 34.8%, 중소도시 32.9%, 농어촌이 32.3%로 거주지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가정경제는 중류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57.0%에 달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일반판매종사자·농업·축산업

이 4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관리직·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순이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성관계의향

성관계의향은 조사 대상들이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현재 성관계를 한 경우 포함)”와 “없다”의 두 범주로 나누었다.

2) 예측변수

(1) 성태도

청소년들의 성태도는 조아미(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아미(2001)의 성태도는 총 35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5개의 문항을 제외한 3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태도 30문항을 요인 분석하였고, '개방주의적 성태도'와 '쾌락주의적 성태도', '보수주의적 성태도'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개방주의적 성태도 요인에는 대체로 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남녀간의 성관계에는 파트너에 대한 애정적인 요소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1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쾌락주의적 성태도는 성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이면서 성과 사랑을 별도로 인식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69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쾌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주의’요인에는 전체 5문항이 포함되었으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45로 지나치게 낮아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2) 사랑

청소년들의 사랑은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1986)¹⁾의 사랑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그의 개념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연인이거나 부부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진경(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랑 척도를 사용하였다. 강진경(1996)은 Sternberg(1986)의 개념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Acker & Davis, 1992 ; Davis & Todd, 1985 ; Sternberg, 1986)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기반으로 하여 25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값과 전체 분산율, 스크리검사 및 Sternberg(1986)의 이론적 주장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친밀감(Cronbach’s α = .89)’과 ‘열정/헌신(Cronbach’s α = .88)’의 두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1) 사랑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 중 Sternberg(1986)는 사랑의 기본적 유형을 병렬식으로 분류하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사랑의 현상을 통합함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랑의 삼각이론에 의하면 사랑은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헌신(commitment)이라는 세 구성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친밀감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 연결감, 유대감”을 의미하는 따뜻한 감정의 체험이고, 열정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인 극치 등으로 이끄는 강렬한 욕망”의 뜨거움을 의미하는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헌신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는 결심과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책임”을 의미하는 차가운 구성요소를 의미한다(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1999). 현대 사회의 남녀관계는 남녀의 매력과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결혼을 통한 결정과 책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청소년들의 성과 사랑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자존감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김윤정(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10문항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2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이다.

(4) 기타 예측변수

기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로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이성과의 교제기간을 들 수 있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의 성별(남, 여),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정의 경제수준(상, 중상, 중, 중하, 하)을 측정하였다. 교제기간은 몇 년 몇 월로 측정하여 분석 시에는 몇 개월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성태도 및 사랑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그리고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성관계의향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들의 성관계의향과 관련되는 변수들을 규명하기에 앞서 설문조사

를 실시한 510명 중 이성 친구 유무와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의향을 분석하였다(표1, 표2).

〈표 1〉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이성친구 유무

<N=510>

	있다	없다
이성친구	31.9%	68.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에서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510명의 조사대상자 중 31.9%인 159명으로 나타났다(표 1). 이중 고등학생은 37.7%, 대학생은 62.3%로 대학생이 많았으며, 남자 46.5%, 여자 53.5%로 여자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과 이해경(2002)의 연구,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삼, 이기종 및 조원호(1997)의 연구보다 약간 낮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과 교제하는 경우만을 선별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과거의 이성교제 경험까지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의 성관계 의향

<N=159>

	있다	없다
성관계 의향	47.1%	52.9%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의향을 질문한 결과 73명(47.1%)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현재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하거나,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47.1%로 나타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냈다(표 2). 이는 선행연구(강영삼 외, 1997 ; 김영희, 1993 ; 김주희 외, 2003 ; 류진혜 외, 1995 ; 성한기, 1996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보다 높은 수치이다.

2.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 예측요인

이성 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 의향에 영향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성과의 성관계 의향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을 위한 집단은 성관계를 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성관계 의향집단)로, 또 하나의 집단은 성관계를 할 의향이 없는 학생들(성관계 비의향집단)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성관계 의향 여부였고 예측요인들은 본 연구의 탐험적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관련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측요인들은 선행연구 분석에 따라 연령, 성별,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교제기간, 자존감, 성태도(개방주의적, 쾌락주의적), 사랑(친밀감, 열정/헌신)으로 구성하였다.

〈표 3〉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 의향 예측요인

예측변수들	성관계 의향집단 <N=72> M(SD)	성관계 비의향 집단 <N=81> M(SD)	F값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연령	19.97(2.73)	18.80(2.39)	7.997 ⁺⁺	.372	
성별(1=남자)	.57(.50)	.37(.49)	6.242 ⁺	.329	
가정경제수준	2.75(.88)	2.70(.77)	.120	.046	
거주지(대도시=1)	.42(.50)	.28(.45)	2.984	.228	
교제기간	16.17(15.27)	11.97(13.67)	3.223	.236	
자존감	3.78(.66)	3.57(.69)	3.871 ⁺	.259	
성태도	개방주의적 성태도	3.90(.45)	3.59(.42)	18.267 ⁺⁺⁺	.563
	쾌락주의적 성태도	3.07(.60)	2.44(.76)	31.920 ⁺⁺⁺	.744
사랑	친밀감	3.96(.86)	3.89(.78)	.265	.068
	열정/헌신	3.39(.94)	3.06(.86)	5.093 ⁺	.297
Wilks' Lambda= .724 Chi-square=47.220 ⁺⁺⁺					

⁺ p< .05, ⁺⁺ p<.01, ⁺⁺⁺ p<.001

전체 159명의 대학생들 중에서 판별분석에 투입된 변수에 무응답이 있는 사례는 제외되어 총 153명만이 분석되었다. 판별기능에 근거한 분류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73.2%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는데, 성관계 의향집단은 72.2%의 예측정확도를, 그리고 성관계 비의향 집단은 74.1%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어 판별함수는 성관계 의향집단과 비의향 집단을 유사한 수준에서 판별예측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한 변수들은 Wilks' Lambda에 근거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enter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판별함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47.220, df=10, p=.001). 분석결과 연령, 성별, 자존감, 개방주의적 성태도, 쾌락주의적 성태도, 열정/헌신이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구조계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쾌락주의적 성태도(.744), 개방주의적 성태도(.563), 연령(.372) 순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을 판별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 쾌락주의적 성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성에 대한 태도와 성관계 의향과는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쾌락주의적인 성태도는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판별 예측력이 강한 변수이고 그 다음이 개방주의적 성태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신영, 2005 ; 이인숙, 1994; 박희성 외, 1995 ; 조아미, 2001 ; Peplau, Rubin, & Hill, 1977)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들은 성에 대해 쾌락주의적이고 개방적, 허용적일 경우 성행동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성친구에 대한 열정/헌신 역시 청소년들의 성관계 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성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윤경자, 1995, 2002; 홍대식, 1996; Regan & Berscheid, 1995; Mosher & Maclan, 1994; Sprecher, Regan, & McKinney, 1988)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교제기간, 이성친구에 대한 친밀감은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가정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대도시에 사는 경우, 이성친구와 교제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을 예측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성관계의향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이성친구와 사귀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159명을 대상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이성친구와의 성관계의향 예측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47.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 비율을 조사한 선행연구(강영삼 외, 1997 ; 김영희, 1993 ; 김주희 외, 2003 ; 류진혜 외, 1995 ; 성한기, 1996)의 연구보다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현재 하고 있는 학생만이 아니라 성관계를 할 의향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의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적 풍토를 고려하면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실제의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관계 의향을 판별기능에 근거한 분류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73.2%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는데, 성관계 의향집단은 72.2%의 예측정확도를, 그리고 성관계 비의향 집단은 74.1%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어 예측변수들은 성관계 의향집단과 비의향집단을 유사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사례수의 차이가 클 경우 사례수가 많은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윤경자, 2002)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성관계 의향집단과 비의향 집단을 표집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의향에는 성별, 자존감, 개방주의적 성태도, 쾌락주의적 성태도, 열정/헌신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러 변수 중 특히 성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주의적 성태도와 개방주의적 성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쾌락주의적 성태도는 성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이면서 성과 사랑을 별도로 인식하는 태도로, 쾌락주의적인 성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이성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는 인간에게 내면화된 가치관이나 규범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좌우한다(김윤정, 정선아, 2001)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교육에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넷째, 이성친구와 사랑에서 열정/헌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친밀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ternberg(1986)의 사랑의 개념과 관련된다. 사랑의 하위 요소 중 열정이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인 매력과 성적인 관계의 즐거움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친밀감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유대감, 따스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성친구와의 성관계와는 관계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정도가 높은 경우 원치 않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접촉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윤경자(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연령 역시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성관계 의향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김영옥, 1993, 박희성 외, 1995; 윤경자, 2002)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그리 놀랄만한 결과

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만 18세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성관계를 의향하는 집단의 평균연령은 만 19.97세로 성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관계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어린 중고등학생에만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대학생을 성인이라는 이유로 성교육을 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체처두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이성친구와 성행위를 의향한다는 결과는 대학생 등 고연령 집단을 대상으로도 성교육을 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교양과목에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성과 사랑, 결혼학 개론 등을 개설하고, 시청각 교육, 토론학습, 실습 등의 실제적인 학습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성별도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를 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관계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선행연구(김주희 외, 2003)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성에 있어서 남녀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창식과 김윤정(200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학생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에는 자존감이, 여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따라서 이창식과 김윤정(2003)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연결시켜 해석해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이 성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성에 대한 태도는 성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관계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은 성태도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먼저 하는 경우 그 결과가 여학생의 심리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

의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성, 이로 인한 여학생의 고충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존감도 성관계 의향에 영향을 미쳐서, 자존감이 높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이성친구와 성관계의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enata와 David(200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차이는 Renata와 David(2002)는 직접적으로 자존감과 성관계간의 관계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 의향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교제기간은 성관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정경제수준과 성관계, 거주지와 성관계, 교제기간과 성관계간의 관련성을 주장한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선행연구들은 첫째, 현재 성관계를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성관계를 할 의향까지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고, 둘째, 선행연구에서의 성관계는 현재의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만이 아니라 과거의 이성친구 및 기타의 이성과의 성관계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다를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의향 예측변수를 살펴봄으로서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만이 아니라 경험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도 및 교육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510명 중에서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는 159명으로 샘플수가 작고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규모로 샘플링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에 보다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삼, 이기종, 조원호(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조사 연구. 교육논총. 17권, 159-321, 국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강진경(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현주(1998).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Q 방법론적 접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환(1999).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고찰. 아동복지학 8호. 187-211.
- 김민(2002). 청소년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민경(1998). 성에 관한 논리적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제 17집. 195-267.
- 김성수, 김경준, 전경숙(2000). 21세기 농촌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신영(2005). 청소년 성행동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120-140.
- 김영옥(1983). "혼전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대학생과 근로청년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2000). 사회적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정, 이창식 (2004). 청소년의 성충동과 대처간의 관계에서 성태도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385-460.
- 김윤정, 이창식 (2005). 부모의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1). 235-523.
- 김윤정, 정선아(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6), 173-183.

- 김주희, 송은일, 강성희(2003). 성태도·성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4(1). 111-124.
- 김진화, 송병국, 고운미, 이채식, 최창욱, 임형백, 이창식, 김경준, 김진호, 권일남, 양승준(2002). 청소년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 김혜원·이해경(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 분석: 성별, 학교별, 거주지별 비교. 청소년학연구, 9(1), 247-272.
- 남영옥, 이상준(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류진혜, 강재연, 김재환(1995). 대학생의 성에 대한 실태조사. 대학생활동연구, 13, 17-55.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문인옥 (1998).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3(1). 149-163.
-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 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성한기(1996).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 207-227.
- 오덕자 (2003). 사이버시대의 청소년 성지식, 성태도, 성가치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719-733.
- 양성은, 조주영(2005). 비행청소년의 초기 성행동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3). 45-57.
- 연문희 (1997). 연세대학교 재학생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연세상담연구, 13, 91-125.
- 윤가현(2000). 10대 청소년들의 성행동 양상. 청소년복지연구, 2(2). 31-42
- 윤경자(1995). 대학생들의 혼전 성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3(4), 251-263.
- 윤경자(2002).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1), 179-194.

-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1994). “일부 대학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 김윤정(2003).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각차이를 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1), 277-296.
- 정경화(1996). 여고생의 이성의식 향상을 위한 이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1). 청소년의 성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0-R 65.
- 조주영, 김영희 (2001). 영상매체 성메시지와 청소년의 성반응: 성태도와 성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3). 159-178.
- 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 10대 여성의 성행동, 임신실태 및 피임지식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1). 42-50.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홍대식(1996). 한국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2(10), 81-110
- MBC(2000). 2000 MBC 청소년백서.
- Carrol, J. L., Volk, K. D., & Hyde, J. S. (1985).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motives for engaging in sexual intercour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s*, 14. 131-139.
- Davis, K. E., & Todd, M. J.(1985). *Assessing friendship: prototypes, paradigm cases and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pp. 17-34). Ber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Irwin, C. E. Jr. & Shafer, M. A.(1992). Adolescent sexuality: negative outcomes of a normative behavior. *Journal of Marrage and the Family*, 56, 973-986.

- Mosher, D. L., & Maclan, P.(1994). College men and women respond to rated videos intended for male or female audiences: Gender and sexual script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1*, 99-113.
- Peplau, L. A., Rubin, Z. & Hill, C. T. (1977). Sexual Intimacy and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33(2)*. 86-109.
- Regan, P. C., & Berscheid, E.(1995). Gender differences in beliefs about the causes of male and female sexual desire. *Personal Relationships, 2*, 345-358.
- Renata, F., David, W. H.(2002). The transition of adolescent males to first sexual intercourse: anticipated or delayed?. *Perspectives on Sexual & Reproductive Health, 34(4)*.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wenge, M.(2000). Sexual risk behaviors among young people in Bamenda, Cameroon.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6(3)*
- Sprecher, S., Regan, P. C., & McKinney, K.(1998). Beliefs about the outcomes of extramarital sexual relationships as a function of gender of the "cheating spouse". *Sex Roles, 38, 3/4*, 301-311.
- Sternberg, R. J.(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119-135*.

ABSTRACT

Predictors of Adolescents' Intentions of Sexual Intercourse

Lee, Chang-Seek · Kim, Yu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edictors of intentions of sexual intercourse with their dating mates from a sample of 159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y answered an intention(yes/no) of intercourse with their dating mates, self-esteem, love(intimacy and passion/commitment) and sexual attitudes(openness and hedonism), and S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47.1% of the students answered yes when they were asked if they intended to have or had a sexual intercourse with their own dating mates. (2) Students who intended to have a sexual intercourse, tended to be older, male in gender, have higher self-esteem, more open and hedonistic sexual attitude, and higher passion/commitment.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we suggested what sexuality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do for the students who wanted to have or had a sexual intercourse at the period of adolescence.

Key Words : sexual intercours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love

투고일 : 10월 30일, 심사일 : 12월 2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

* Hanseo University